

## 재취업에 관한 분석: 인적자본 관점과 인간능력관점을 중심으로 한 탐색

강철희(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 전공 부교수)

### 1. 서론

경제 위기 이후 실업자의 재취업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관심 대상이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관찰되는 실업자의 재취업 가능성에 대한 지식화 작업은 재취업과 관련된 현상에 대한 다양한 이해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클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업자의 재취업 현황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면서, 실업에서 재취업까지의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요인들을 파악하는데 있어 본 연구는 두 가지 관점에 기반한 요인들을 선택해서 각 요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두 가지 관점 중 하나는 고용이라는 현상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논의되어져 온 인적자본론적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Sen 등에 의해서 강조되어져 오고 있는 인간능력관점이다. 즉 이 두 가지 관점에 기반한 요인들을 선택해서 각 요인들의 영향력이 어떠한 모습을 갖는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Sen(1997)에 의하면 인적자본론적 관점은 사실 인간능력관점에 포괄되어질 수 있는 것이나, 그 내용을 구분해 본다면 인적자본론적인 관점은 인간의 가치와 관련해서 보다 간접적인 특성을 가지며 인간능력관점은 인간의 가치와 관련해서 보다 직접적인 특성을 갖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만약 고용과 재취업 등과 관련지운다면, 인간의 건강, 기초교육, 생활능력, 사회적 능력 등이 고용 및 재취업과 관련해서 더욱 직접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이고, 인간의 학력, 인지기술, 직업력 등은 간접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임을 주장한다. 따라서 그는 고용과 재취업과 관련해서 사회가 인간의 능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지지와 지원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각을 반영하여, 자료의 제한성이 많긴 하나 인적자본론적 관점과 인간능력 관점의 요인들이 갖는 영향력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동시에 인간능력 관점에서 논하는 사회적 능력(배제)의 요인이라 볼 수 있는 성의 차이에 특별히 주목하면서 이 요인의 재취업에의 영향력을 탐색해 보고, 각 성에 따른 다른 요인들의 재취업에의 영향력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관심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위한 자료는 한국노동패널 자료 5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분석에 사용된 사례수는 4차 조사 이후 5차년도 조사시점까지 재취업하지 못한 원개인 1721명과 4차 조사 이후 5차년도 동안 새로이 임금 근로자로 재취업한 원개인 표본 657명을 합한 2378명이다. 이 중 나이가 정년 연령 이상으로 재취업과 관련한 논의의 의미가 적을 수 있는 60세 이상의 원개인을 제외한 1871명을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 질문에 대한 분석은 기술적 분석과 함께 partial likelihood estimation의 방법에 기반하여 위험도를 예측하는 분석방법, 즉 재취업의 가능성을 예측하는 cox 회귀분석을 이

용하였다.

본 연구는 2차 자료의 분석이어서 인적자본론적 관점 및 인간능력 관점의 요인들을 충분히 하고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나, 이러한 관점의 탐색을 가능케 한다는 측면에서 제한적이거나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 2. 노동시장에서의 재취업 고용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

재취업 고용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크게 노동공급 측면에서의 논의와 노동수요 측면에서의 논의 등으로 다양하게 나뉘질 수 있다. 전자의 대표적인 이론은, 개인은 인적자본 투자행위를 통해 높은 생산성을 이루어내며, 이러한 생산성의 차이가 재취업과 재취업 시 고용형태 및 소득수준의 차이로 귀결된다고 설명하는 인적자본 이론으로 볼 수 있다(Schultz, 1963; Becker, 1965; Mincer, 1974). 그리고 후자의 대표적인 이론은 노동시장이 구조적으로 분절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 내 임금, 근로조건, 직업의 안정성 등에 있어서 유동성이 단절되어 있다고 설명하는 이중노동시장 이론이라 볼 수 있다(Piore, 1971; Gordon, Edward and Reich, 1975). 그러나 본 연구는 인적자본 이론과 인간능력 측면에서의 논의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서는 인적자본 이론과 인간능력 측면에서의 논의를 간단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 1) 인적자본 이론 및 관련 이론들의 논의

인적자본론의 기본적 가정은 교육비를 인적자원인 노동자에게 투자하면 할수록 노동자의 질적 향상으로 인해 생산력이 높아지고, 높아진 생산력은 개인의 소득증대를 가져옴으로서, 국가적으로는 경제발전으로 직접 연결된다는 것이다(최은수, 1997). 슉츠(Schultz, 1961, 최은수, 1997, 재인용)는 교육비는 소비가 아니라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자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투자라고 주장한다. 인간자본 투자의 입장에서 교육은 실물자본을 변화시키지 않더라도 노동자 1인당 더 높은 산출을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수익성을 지닌 투자라고 보았다. 결국, 인적자본론은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의 가치를 중요하게 간주하고, 교육기회를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등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강화하여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발전 내지는 국가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인적자본 이론(human capital theory)은 완전경쟁시장과 노동의 동질성에 대한 관점을 토대로 하여 노동의 질적 차이가 노동시장에서의 고용, 임금, 고용형태의 차이를 야기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고 보고, 노동의 질을 개인의 투자행위에 의해 설명하는 이론이다(주성환·최준혜, 2001). 이러한 시각에서 인적자본이론은 재취업 시 임금 및 고용형태는 교육이나 훈련, 경력 등의 인적자본 축적량의 차이에 의해 설명될 수 있으며 인적자본 축적의 정도는 개인

의 선택에 의해 결정됨을 강조한다. 인적자본이론은 인적자본 형성의 주요 방법인 교육과 경력은 생산성을 증대시키기는 하지만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미래의 더 많은 소득을 위해 현재소득을 포기하는 투자행위이며, 이러한 선택은 개인의 현재소득과 미래소득 간의 선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설명에 기초해서 인적자본 이론은 교육 등에 대한 투자 결정은 현재 소득을 포기하는 투자행위로 이를 통해 미래의 노동시장에서 높은 임금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차지하게 되더라도 그것은 자신의 인적자본투자에 대한 수익 즉 지출한 교육비용에 이자를 붙여 회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고학력 숙련노동자와 저학력 미숙련노동자의 평생임금소득과 근로조건은 가치는 동일하다고 본다. 재취업 및 재취업 형태 그리고 임금수준과 관련해서, 인적자본 이론은 교육, 일의 경험 등과 같은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인적자본의 차이로 인하여 재취업시의 임금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주성환·최준혜, 2001).

인적자본 이론에서 주장하는 교육, 생산성, 소득간의 단순한 인과 관계적 설명의 비현실성에 대한 비판으로, Spence(1974)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량이 생산성에 직접 연결되기보다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사용자에게 채용 정보나 선발도구로 사용된다고 주장하였다. 선발이론에서는 높은 임금 및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져오는 직접적인 요인이 교육이나 훈련 그 자체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는 개인의 능력으로 자질이 뛰어난 사람은 같은 양의 인적 자본투자에서 더 높은 생산성 증대 효과를 가질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것이 사용자의 채용과정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그 결과 인적자본에 대해 효율적인 투자를 한 이들은 높은 임금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차지하게 된다고 설명한다(김계연, 2000).

Thurow(1975)는 노동자의 훈련가능성과 적응가능성은 바로 교육에 의해서 상징되어질 수 있고, 직무라는 것은 바로 이 훈련가능성과 적응가능성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직무경쟁 이론을 통해 교육과 같은 요인이 직무와 임금의 결정요인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이 이론은 고용주에게는 노동자의 잠재적 훈련비용을 예고해 주는 배경특성으로 교육수준 등이 채용을 위한 유일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교육은 개인의 능력에 대한 간접적 측정도구로 활용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배운 지식이 해당 직업에 소용없는 것일지라도 한 유형의 기능을 습득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다른 유형의 기능도 쉽게 습득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교육적 성취가 노동자의 배경특성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인적자본 이론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 서면서도 인적자본 이론이 주목하는 변수에 동일하게 주목하는 선발 이론과 직무경쟁 이론은 기본적으로 교육과 훈련 등은 사용자의 선발도구 혹은 훈련가능성에 대한 신호(signal)로 작용하여, 교육수준이 높을 경우 노동공급 대기 행렬의 선두에 위치하여 재취업시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조준용, 1999).

## 2) 인간능력 측면에서의 논의

인간능력 접근을 주장하는 Sen(1997; 1999)은 기본적으로 앞서 논의한 인적자본론의 성과

를 충분히 인정한다. 그러나 인간능력접근은 인적자본이라는 개념이 생산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인간의 개발에 집중하는 것의 제한성을 부각시키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에 그 초점을 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능력인 실질적 지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인간능력관점을 발달시킨 대표적인 경제학자 Sen(1997; 1999)은 인적자본론과 인간능력 접근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인적자본에 관한 논의는 생산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인간개체에 대해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인간능력관점은 사람들로 하여금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능력에 관심을 둔다. 이 두 시각은 서로 관계성이 있으나 다른 성과물에 관심을 둔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인다. 즉 인적자본 관점은 관행적으로 시장에서의 높은 가격을 흥정할 수 있는 기능이라는 간접적 가치에 의해 관행적으로 규정되는 경향이 있으나, 인간능력 관점은 보다 포괄적인 관점, 즉 인간능력의 직접적(인간의 윤택한 삶)이고 간접적인 결과물(시장에서의 높은 가격 흥정) 모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교육의 기능을 보면, 교육은 생산에 더 효율적일 수 있는 인적자본의 향상을 가져오고, 동시에 경제에 있어 생산성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소득을 증가시킨다. 아울러서 교육은 동일 소득수준의 경우에 더 많은 혜택을 가능하게 한다. 즉 교육은 무엇을 읽고 의사소통하고, 논쟁하며, 나아가 지식에 기반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며, 다른 이로 하여금 그러한 이의 말을 사람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단순화하면, 인간능력 관점의 강조점은 바로 교육은 상품생산에 있어 인적자본의 역할을 크게 뛰어넘는 성과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Sen은 인적자본 개념의 유용성도 불구하고, 인간을 보다 넓은 관점에서 바라볼 것을 주장한다. 이런 점에서 인간능력관점은 대안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인적자본관점에 부가적인 것이며, 이를 포함하는 것일 수 있음도 언급한다. 정리해 보면, 인적자본에 초점을 두고 논의하는 것과 인간능력에 초점을 두고 논의하는 것 사이에는 가치적인 측면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차이는 수단과 목적간의 구별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3. 인간능력 관점에서의 인간능력 개념화와 조작화 및 인적자본의 조작화

#### 1) 인간능력 관점에서의 인간능력 개념화와 조작화

인간능력관점이 어떻게 개념화 및 조작화되고 있는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여성학자인 Nussbaum(1999)은 인간 능력을 세 가지 능력으로 개념화한다. 기본 능력(basic capability), 내적 능력(internal capability) 그리고 조합능력(combined capability)이다. 여기서 기본 능력이란, 적성이나 소질과 같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이나 기술을 말하고, 내적 능력이란, 내적이나 개인적 상태를 지칭하는 말로써, 활동(act)이나 기능에 대한 준비된 상태를 의미한다. 문자해독력, 수리력, 교육이나 훈련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내적능력을 달리 표현하면, 다양한 역할이나 다양한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잠재력의 발달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개인적 능력이라 말할 수 있다. 조합 능력이란, 내적 능력이 적절한 외적 조건과 결합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 내에서의 법이라던가 공공제도에서의 구조, 또는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조직의 구조 등을 의미한다. 즉, 사회경제적 요구에 사람들이 원하는 개인적 기능을 발휘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Qizilbash(1996)는 Sen의 인간능력관점과 관련해서 보다 세부적이고 세밀한 가치 목록표를 제시함에 의해 인간능력 개념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확장시킨다. 즉 인간능력의 구성요소로 (1)건강수준, 영양, 공중위생, 휴식, 안전, (2)최소한의 이해력(학습능력, 문자해독력, 기본적인 지적·신체적 역량), (3)자기-존중과 열망, (4)자율성이나 자기결정성, (5)자유와 해방(liberty), (6)향유(enjoyment), (7)지식, (8)사회생활을 함께 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유의미한 관계, (9)삶의 의미를 달성케 하는 성취 등을 제시한다.

인간능력관점을 여성학에 적용하는 학자인 Nussbaum(2002b)은 불평등한 사회적·정치적 환경이 어떻게 여성의 인간능력에 있어 제한성을 가져오는지, 즉 능력의 불평등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논하면서 인간능력의 의미를 제시한다. 그녀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과 달리 인간 삶의 기본적인 기능을 지니는데 취약하고 문장해석, 특정 전문직이나 기술적 교육을 갖는데 있어 남성보다 덜 기능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첫째, 국가에서 법률적으로 동등함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고, 둘째, 여성이 갖는 이중부담 즉, 고용과 가정주부 및 아동양육자로서의 책임감 때문이며, 마지막으로 재충전에 대한 기회결여와 창조적이고 인지적 자질을 배양할 만한 기회가 근본적으로 여성에게 부여되지 않기 때문임을 강조한다. Nussbaum(2001)은 인간능력의 기능성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기능적 능력을 다음과 같이 열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인간의 기능적 능력은 (1)Life(평균수명까지 생활 할 수 있는 능력), (2)Bodily Health(건강을 지닐 능력, 건강을 재생산 할 수 있어야 하며, 적절한 영양섭취와 쉬를 가질 능력), (3)Bodily Integrity(이동의 자유, 폭력적 폭행에 대한 위험이 없는 것; 성폭행, 가정폭력; 성적 만족과 재생산 선택을 위한 기회를 지니는 것), (4)Senses, Imagination, and Thought(감각을 사용할 수 있고, 상상하거나 사고할 수 있는 능력, 진정으로 인간다움을 지니는 것), (5)Emotions(우리 바깥에 존재하는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 애착을 형성하는 능력.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 (6)Practical Reason(선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의 인생계획을 반추하고(reflection) 관여하는 것), (7)Affiliation(다른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동등한 가치 지닌 존재로 대우 할 수 있는 것), (8)Other Species(동물이나 식물 그리고 자연 전체에 대한 배려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것), (9)Play(웃을 수 있는 것, 놀이할 수 있는 것, 휴양의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것), (10)Control over One's Environment(자신의 유일한 삶을 통치하는데 있어 정치적 선택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 정치적 참여 권리와 자유 언론과 연합에 대한 보호를 지니는 것 그리고 자산을 취할 수 있는 것) 등이 기본적인 인간의 능력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 2) 인적자본의 조작화

인적자본론 이론을 개념화하고 조작화하는데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많은 연구들에서 교육, 직업력, 기술 보유 등에 초점을 두고 인적자본이 조작화 되는 경향이 있다. 최

은수(1997)는 고용침체와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인적자본적 측면에서의 접근을 논하면서, 직업훈련과 학교교육의 연계성 강화, 공공직업훈련의 강화, 민간주도의 직업훈련의 경쟁구조 강화, 직업교육훈련의 다양화, 전문적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체제구축, 평생 직업능력개발 체제 구축 등을 제시하는데, 그의 이러한 제시에서 인식할 수 있듯이 직업훈련과 교육을 인적자본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삼는다.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조사된 International Adult Literacy Survey를 이용하여 국가간 임금결정요인들을 살펴 본 정광호(2002)는 고도의 인지기술(cognitive skills)과 대학교육이라는 고등교육의 프리미엄이 임금결정구조에서 영향력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즉 선진국들에서 인지기술과 고등교육 등과 같은 인적자본이 임금의 수준을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보고하면서, 인지기술과 고등교육을 인적자본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삼는다.

한편 교육(education)과 인지기술(cognitive skill)<sup>1)</sup>이외에 직업력(job experience)도 인적자본의 주요한 내용으로 간주하는 연구 논문들도 많이 있다.

이러한 논의들을 기초로 다소의 한계는 있으나 인적자본론적 관점의 요인들과 인간능력 관점의 요인들을 다음과 같은 인접 변수(proxy measure)들을 통해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표 1> 인적자본과 인간능력에 대한 개념화와 조작화

개념 구분	하위요인	변수
인적자본	학력	학력수준
	인지기술	기술수준, 직업훈련 경험
	직업력	근속기간, 고용형태, 이직사유
인간능력	교육능력	기초교육능력
	건강 및 의료적 능력	건강보험가입, 의료비 지출
	소득 및 지불능력	생활지불능력, 사회보험수혜여부, 이전소득
	사회적 능력	사회적 지위, 거주지, 성, 나이

#### 4. 연구방법론

##### 1) 연구대상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분석자료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제5차년도 자료이다. 이는

1) 인지기술을 측정하는데는 많은 이슈들이 제기되는데, 이에 관한 논의는 정광호(2002)의 논문을 참고.

1998년~2002년, 한국노동연구원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비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5000가구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1998년부터 연1회 노동시장활동 및 소득,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을 추적 조사하는 종단적(longitudinal) 조사이다(방하남 외, 1999). 이 자료에서는 총 4,298가구가 설문에 응답하였고, 총 10,965명의 개인이 유효응답을 하였다. 이들 중 4차 조사 이후 실직상태에서 5차년도에 재취업하지 못한 원개인 표본은 1,721명이다. 또한 4차 조사 이후 실직상태에서 5차년도에 새로이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한 원개인 표본은 657명이다. 따라서 본 연구조사의 표본은 총 2,378명이다. 즉 본 분석에 사용된 사례수는 4차 조사 이후 5차년도 조사시점까지 재취업하지 못한 원개인 1721명과 4차 조사 이후 5차년도 동안 새로이 임금 근로자로 재취업한 원개인 표본 657명을 합한 2378명이다. 이 중 나이가 정년 연령 이상으로 재취업과 관련한 논의의 의미가 적을 수 있는 경우, 즉 60세 이상인 원개인을 제외한 1871명을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 질문에 대한 분석은 기술적 분석과 함께 partial likelihood estimation의 방법에 기반하여 위험도를 예측하는 분석방법, 즉 이 논문에서는 재취업의 가능성을 예측하는 cox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 2) 변수의 측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재취업 위험도이고, 이 위험도는 실업기간과 취업 여부의 사건 변수를 통해서 구성된다. 실업기간은 전직 퇴직일로부터 재취업까지의 시간을 일(day)단위의 자연대수 값으로 취했다. 재취업 여부는 재취업이 된 경우는 1, 미취업인 경우는 0으로 한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즉 인적자본론적 접근과 인간능력 접근을 반영하는 독립변수들의 구성은 아래 <표 2>와 같다.

### <표 2> 변수의 측정

변수		변수의 측정
종속 변수	실업기간 재취업여부	전직 퇴직일로부터 재취업까지의 시간 일(day)단위의 자연대수 값 재취업 함 1, 재취업 못함 0
독립 변수	인적 자본 접근 직업훈련경험 근속기간 전직 고용형태 이직사유	학력수준 자연로그 값 기술수준 적합도 5점 척도 경험 있으면 1, 아니면 0 일(day)단위, 스퀘어루트 값 전직 정규직1, 비정규직 0 자발적 퇴직1, 비자발적 퇴직 0
	인간 능력 접근 생활지불능력 사회보험수혜여부 이전소득여부 사회적 지위 연령 연령제공 성별 수도권 거주여부	중졸이상 1, 아니면 0 가입 1, 비가입 0 의료비지출 자연로그 값 월평균생활비(만원단위) 자연대수 값 있음 1, 없음 0 있음 1, 없음 0 사회적 지위 5점 척도 만 나이 연령에 제공한 값 남성 1, 여성 0 수도권 거주 1, 아니면 0

## 5. 연구결과

### 1) 기술적 분석 결과

먼저 본 연구 대상자의 재취업 여부를 보면, 재취업을 한 경우는 1239명으로 67.5%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고, 실업기간은 평균 3.97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령에서는 평균이 37.68세인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에서는 여성이 1262명으로 본 연구 대상자의 67.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을 보면, 고졸 이상이 857명(45.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졸 이하가 442명(23.6%)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적 지위를 보면, 중하와 중류층에 각기 731명(39.1%), 727명(38.9%)의 분포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 대상자 중 1,697명(66%)이 기술수준 적합성이 적절했었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상자 중 1,177명(67.7%)이 이전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고용되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중 1,347명(72%)이 자발적 퇴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들의 근속기간의 평균 기간은 3.6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중 1,382명(73.9%)이 이전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다수인 1,827명(97.6%)이 직업훈련의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다소 주목할 만한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것은 바로 이들 중 1,612명(86.2%)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보험의 수혜여부를 보면, 대다수인 1,750명(93.5%)이 사회보험의 수혜를 받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 대상자들의 월평균 생활비의 규모를 보면, 평균 142.31만원 정도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거주지의 분포를 보면, 수도권과 광역시는 합해서 619명(33.1%)이고, 1,107명(59.2%)이 수도권, 광역시, 중소도시 및 농촌이 아닌 그 밖의 지방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 기술적 분석 1

변수명	구분	빈도	% 혹은 평균(SD)
연령	20세 이하	16	.9
	21세~29세	501	26.8
	30세~39세	610	32.6
	40세~49세	397	21.2
	50세~59세	312	16.7
	60세	35	1.9
	나이 평균(SD)		37.68(11.87)
성별	여성	1262	67.5
	남성	609	32.5
학력	중졸이하	442	23.6
	고졸	857	45.8
	대졸이상	571	30.5
사회적 지위	하류층	343	18.3
	중하류층	731	39.1
	중류층	727	38.9
	중상류층	66	3.5
	상류층	4	.2
기술수준 적합도	매우 낮음	8	.4
	낮은 편	150	8.0
	맞는 편	1697	66.0
	높은 편	14	24.7
	매우 높음	0	0
	평균(SD)		2.76(.5)
전직고용형태	정규직	1177	67.7
	비정규직	562	32.3
퇴직사유	비자발적 퇴직	436	23.3
	자발적 퇴직	1347	72.0
재취업여부	미취업	1239	67.5
	재취업	632	32.5

변수명	구분	빈도	% 혹은 평균(SD)
이전소득 여부	없음	1382	73.9
	있음	489	26.1
직업훈련경험	없음	1827	97.6
	있음	44	2.3
건강보험 가입여부	비가입	1612	86.2
	가입	259	13.8
거주지	수도권	422	22.6
	광역시	197	10.5
	중소도시 및 농촌	145	7.7
	기타(지방)	1107	59.2
사회보험 수혜여부	없음	1750	93.5
	있음	121	6.5
근속기간(년)	평균(SD)		3.6(5.34)
월평균생활비(만원)			142.31(80.33)
실업기간(년)	평균(SD)		3.97(5.15)

남녀 성별 비교의 결과를 보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먼저 본 연구 대상자의 재취업 여부를 성별 비교를 통해 보면, 남성이 재취업을 한 경우는 347명으로 57%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은 285명(22.6%)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기간은 남성의 경우 평균 1.97년이고 여성은 4.94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령에서는 남성의 경우 20대의 분포가 가장 많은 것(29.7%)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30대의 분포가 가장 많은 것(35.3%)으로 나타났다. 학력을 보면, 남성의 경우 대졸 이상이 237명(38.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가지나, 여성의 경우 고졸 이상이 608명(48.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적 지위를 보면, 남성의 경우 중하류층(41.9%)에 가장 많은 비중을 가지나, 여성의 경우 중류층(42.6%)이 가장 높은 비중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수준 적합성에서는 남성과 여성 각기 83.9%와 94% 정도가 기술수준이 적합하게 맞는 편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녀 모두 전직의 고용형태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이전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고용되었던 비율이 각기 69.4%와 69.5%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중 남성의 경우 62.7%가 자발적 퇴직을 가졌고, 여성의 경우 76.5%가 자발적 퇴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들의 근속기간의 평균 기간을 보면, 남성의 평균 근속기간은 4.64년이고 여성의 평균 근속기간은 3.09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과 여성의 이전소득을 비교해 보면, 각기 72.7%와 74.4%가 이전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업훈련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대다수인 96.1%와 98.4%가 직업훈련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남성 중 73.7%가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고 있음에 반해, 여성의 경우 92.2%나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보험의 수혜여부를 보면, 남성과 여성의 대다수인 91.3%와 94.6%가 사회보험의 수혜를 받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 대상자들의 월평균 생활비의 규모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평균은 130.66만원, 여성의 평균은 147.94만원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월평균 생활비 규모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남성과 여성의 거주지의 분포를 보면, 수도권, 광역시, 중소도시 및 농촌이 아닌 그 밖의 지방에서 거주하는 비중이 남성이 56.7%이고 여성의 경우 60.4%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기술적 분석 2 - 성별 비교

변수명	구분	남성	여성
		빈도(%) 혹은 평균(SD)	빈도(%) 혹은 평균(SD)
연령	20세 이하	12(2.0)	4(0.3)
	21세~29세	181(29.7)	320(25.4)
	30세~39세	165(27.1)	445(35.3)
	40세~49세	122(20.0)	275(21.8)
	50세~59세	111(18.2)	201(15.9)
	60세 이상	18(3.0)	17(1.3)
학력	중졸이하	122(20.0)	320(25.4)
	고졸	249(40.9)	608(48.2)
	대졸이상	237(38.9)	334(26.5)
사회적 지위	하류층	146(24.0)	197(15.6)
	중하류층	255(41.9)	476(37.7)
	중류층	190(31.2)	537(42.6)
	중상류층	17(2.8)	49(3.9)
	상류층	1(0.2)	3(0.2)
기술수준 적합도	매우 낮음	5( .8)	3( .2)
	낮은 편	82(13.5)	68(5.4)
	맞는 편	511(83.9)	1186(94)
	높은 편	10(1.6)	4( .3)
전직고용형태	정규직	324(53.2)	671(53.2)
	비정규직	143(23.5)	294(23.3)
퇴직사유	비자발적 퇴직	199(32.7)	237(18.8)
	자발적 퇴직	382(62.7)	965(76.5)
재취업여부	미취업	262(43.0)	977(77.4)
	재취업	347(57.0)	285(22.6)

변수명	구분	남	여
		빈도(%) 혹은 평균(SD)	빈도(%) 혹은 평균(SD)
이전소득 여부	없음	443(72.7)	939(74.4)
	있음	166(27.3)	323(25.6)
직업훈련경험	없음	585(96.1)	1242(98.4)
	있음	24(3.9)	20(1.6)
건강보험 가입여부	비가입	449(73.7)	1163(92.2)
	가입	160(26.3)	99(7.8)
거주지	수도권	158(25.9)	264(20.9)
	광역시	64(10.5)	133(10.5)
	중소도시 및 농촌	42(6.9)	103(8.2)
	기타(지방)	345(56.7)	762(60.4)
사회보험 수혜여부	없음	556(91.3)	1194(94.6)
	있음	53(8.7)	68(5.4)
근속기간(년)	평균(SD)	4.64(7.18)	3.09(4.08)
실업기간(년)	평균(SD)	1.97(2.76)	4.94(5.73)
월평균생활비(만원)	평균(SD)	130.66(71.81)	147.94(83.59)

## 2) Cox 회귀분석 결과

먼저 전체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재취업확률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재취업확률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는 학력수준, 근속기간, 건강보험가입여부, 성별 변수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반적으로 볼 때, 실업기간 단위를 고려한 재취업확률 분석 결과를 보면, 시간의 변화에 따른 재취업의 가능성은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근속기간이 많을수록 더 낮아지는 모습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건강보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 시간의 변화에 따른 재취업의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모습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록 marginal level에서의 유의도를 갖긴 하나, 사회보험의 수혜를 갖는 경우, 시간의 변화에 따른 재취업의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모습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적자본론적 시각에서 설정한 요인들은 재취업에 있어서 부적인 관계를 가지나, 인간능력의 시각에서 설정한 요인들 특히 사회적 보호와 관련된 요인들은 재취업에 있어서 정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이러한 결과는 보다 안전한 환경에 의해 보호를 받으면서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는 이들의 재취업이 보다 용이한 형태로 진행되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성 변수의 경우, 남성의 경우에 시간의 변화에 따른 재취업의 가능성은 여성보다 더 높아지는 모습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에 비해 남성의 경우에 재취업이 보다 용이한 형태로 전개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차이와 관련된 이러한 결과는 사회에 의해서 구성되고 정의되어질 수 있는 인간의 사회적 능력이 다른 특성을 가진 다른 구성원

에 대해서는 하나의 배제 차원에서 기능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에서는 이 논문에서 관심을 갖는 연구 문제 중 또 다른 하나가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탐색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각 대상별로 재취업확률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를 보면, 여성의 경우와 남성의 경우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다른 모습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들을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기술적합도 수준, 근속기간, 건강보험가입, 연령과 연령제곱 변수 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에는 학력, 직업훈련경험, 근속기간, 건강보험가입, 생활비규모, 연령과 연령제곱 변수 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과 남성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학력에서는 남성의 경우에 학력이 재취업 확률과 부적인 관계를 갖고, 기초교육 능력에서는 여성의 경우에만 기초교육능력이 재취업 확률과 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의 경우, 시간의 변화에 따른 재취업의 가능성은 학력이 높을수록 더 낮아지는 모습을 가지나, 여성의 경우 기초교육능력을 가진 경우 재취업의 가능성은 더 높은 모습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적합도에서는 여성의 경우에만 기술적합도가 재취업 확률과 부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의 경우, 전직에서의 기술 적합도가 높다고 인지할수록 재취업의 가능성은 더 낮아지는 모습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업훈련에 있어서는 남성의 경우에 있어서만 직업훈련이 재취업 확률과 정적인 방향에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과 관련된 이러한 결과는 직업훈련이 재취업 등에 영향력이 별반 크지 않다는 것을 보이는 기존의 다른 연구 결과들과는 상이한 결과인데, 이에 관해서는 보다 주의 깊은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직 사유의 경우, 남성의 경우에 있어서만 재취업 확률과 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발적인 퇴직을 가진 경우, 재취업의 가능성이 비자발적인 퇴직인 경우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생활비 규모에 있어서는 남성의 경우에 생활비 규모가 재취업 확률과 정적인 방향에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의 경우, 생활비 규모가 높을수록 시간의 변화에 따른 재취업의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모습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과 연령 제곱은 여성과 남성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재취업 확률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의 경우, 일정 연령까지 시간의 변화에 따른 재취업 확률이 낮아지다가 일정 연령이후에는 재취업 확률이 높아지는 모습을 갖는데 반해, 남성의 경우에는 일정 연령까지 시간의 변화에 따른 재취업 확률이 높아지다가 일정 연령이후에는 재취업 확률이 낮아지는 모습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여성과 남성의 유사점을 살펴보면, 근속기간은 남녀 모두에서 재취업 확률과 부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건강보험 변수는 남녀 모두에서 재취업 확률과 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근속기간이 길수록 시간의 변화에 따른 남녀 모두 재취업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모습을 그리고 건강보험의 혜택을 갖는 경우 시간의 변화에 따른 재취업의 가능성은 남녀 모두에서 높은 모습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볼 때, 전체 대상자에 대한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경우와 남성의 경우에 있어 인적자본론적 시각에서 설정한 요인들은 재취업에 있어서 부적인 관계를 가지나, 인간능력의 시각에서 설정한 요인들 특히 사회적 보호와 관련된 요인들은 재취업에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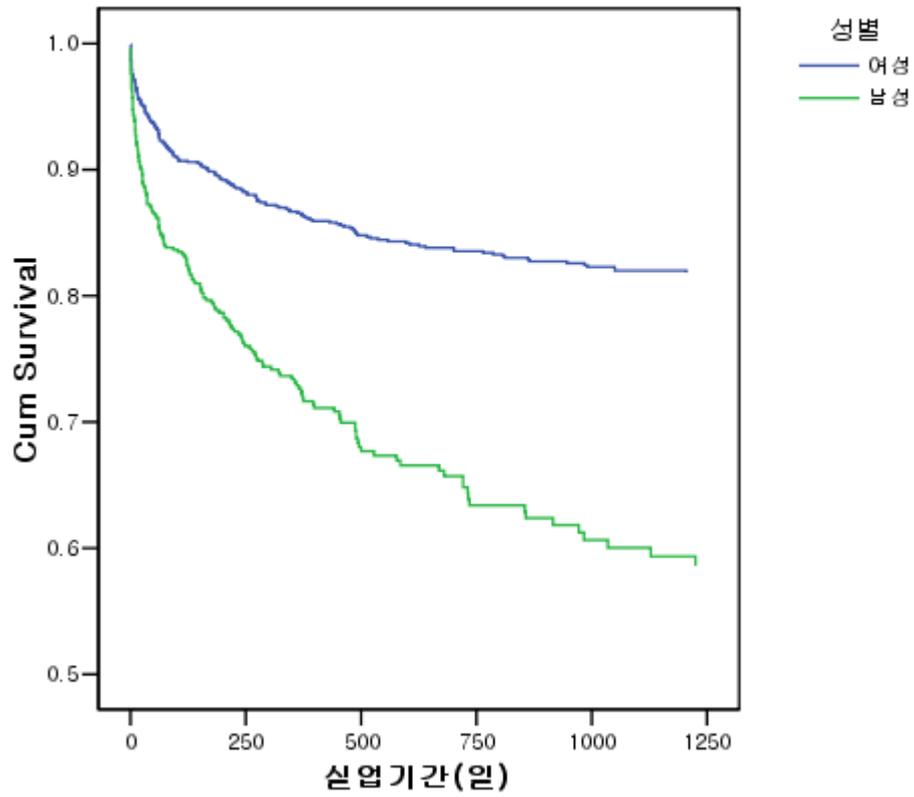
어서 정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일반적인 패턴이 성별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보이는데, 인적자본론적 시각의 변수라 할 수 있는 학력의 경우, 남성에 대해서만 부적인 관계를 갖고, 인간능력시각을 나타내는 변수라 할 수 있는 기초교육능력은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만 재취업 확률과 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간능력시각을 나타내는 또 다른 변수라 할 수 있는 생활비 지불능력과 사회보험수혜 변수도 남성의 경우에 있어서만 재취업 확률과 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다 안전한 환경에 의해 보호를 받으면서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는 이들의 재취업이 보다 용이한 형태로 진행되어질 수 있으나, 그러한 가능성이 어떤 사회적 능력에 따라서, 예를 들면 성별과 같은 변수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가질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의 재취업 가능성의 차이를 시간의 변화에 따른 각 대상의 생존 가능성과 위험 가능성으로 정리한 다음의 <그림 1>과 <그림 2>를 통해 보다 상세히 이해해 볼 수 있다.

<표-3> 재취업에 대한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분석결과

	Model 1 (전체대상자)	Model 2 (여성)	Model 3 (남성)
독립변수	<i>B</i>	<i>B</i>	<i>B</i>
학력수준	-1.852**	-.945	-4.711***
기술수준적합도	-.176	-.925***	-.011
직업훈련경험	.275	.177	.732*
근속기간	-.016***	-.021***	-.015***
고용형태	.167	.278	.192
이직사유	.138	-.239	.295#
기초교육능력	.234	.394#	-.184
건강보험가입여부	1.878***	2.481***	1.295***
의료비 지출	-.060	-.129	-.04
생활지불능력	.000	.000	.005***
사회보험수혜여부	.427#	.366	.757#
이전소득여부	-.036	-.208	.097
사회적지위	.004	-.173	.156
연령	.005	-.147**	.312***
연령 제공	.001	.002*	-.004***
수도권 거주여부	.200	.020	.247
성별	.906***	----	----
-2Log-Likelihood	4979.700	2197.344	2108.173
Chi-square	725.453***	470.621***	198.934***
Degree of freedom	17	16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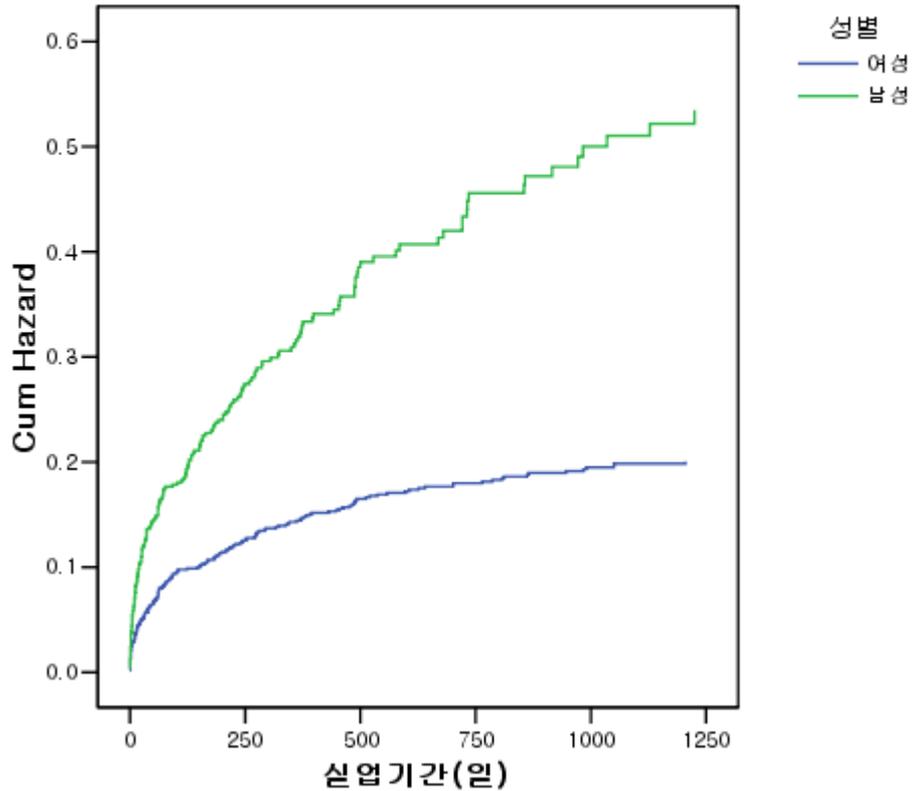
<그림 1> 성별에 따른 생존 확률의 변화

Survival Function at mean of covariates



<표 2> 성별에 따른 위험 확률의 변화

Hazard Function at mean of covariates



## 6.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인적자본론적 관점과 인간능력 관점의 요인들이 갖는 영향력을 비교의 시각에서 탐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또한 인간능력 관점에서 논하는 사회적 능력(배제)의 요인이라 볼 수 있는 성의 차이에 특별히 주목하면서 이 요인의 재취업에의 영향력을 탐색해 보고자 각 성에 따른 다른 요인들의 재취업에의 영향력을 비교의 시각에서 탐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를 정리해 보면, 인적자본론적 시각에서 설정한 요인들은 재취업에 있어서 부적의 관계를 가질 수 있으나, 인간능력의 시각에서 설정한 요인들 특히 사회적 보호와 관련된 요인들은 재취업에 있어서 정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성 변수의 경우, 남성의 경우에 시간의 변화에 따른 재취업의 가능성은 여성보다 더 높아지는 모습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에 비해 남성의 경우에 재취업이 보다 용이한 형태로 전개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적자본론적 요인의 영향력과 인간능력 시각의 요인이 보이는 일반적인 패턴이 성별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를 보이는데, 인적자본론적 시각의 변수라 할 수 있는 학력의 경우, 남성에 대해서만 부적인 관계를 갖고, 인간능력시각을 나타내는 변수라 할 수 있는 기초교육능력은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만 재취업 확률과 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간능력시각을 나타내는 또 다른 변수라 할 수 있는 생활비 지불능력과 사회보험수혜 변수도 남성의 경우에 있어서만 재취업 확률과 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다 안전한 환경에 의해 보호를 받으면서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는 이들의 재취업이 보다 용이한 형태로 진행되어질 수 있으나, 그러한 가능성이 어떤 사회적 능력에 따라서, 예를 들면 성별과 같은 변수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가질 수도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인식하게 된 한계 및 제안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본 논문은 인간능력의 관점이 갖는 의미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탐색해 보려는 의미를 가지나, 개념의 명확화와 조작화 측면에서 다소의 한계를 가진다고 본다. 따라서 향후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 특히 인적자본 관점과의 차별성의 부분에 대한 보다 높은 수준의 심사숙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다음으로는 노동공급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분절 논의와 같은 노동수요 측면에서의 논의들과도 비교할 수 있는 모델을 설정하여 재취업의 모습을 보다 포괄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접근도 제시해 본다. 마지막으로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 등이 중요한 설명력을 가질 수도 있는데, 다음의 연구들에서는 선행 연구 및 논의의 세분화를 통해 인적자본 변수와 인간능력 변수 간의 혹은 인간능력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 등을 파악해 보는 노력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 <참고문헌>

- 강철희 외 2명. 1999. "실업급여 수급권자의 실업기간과 재취업에 관한 실증연구: 모수적 생존모델(Log-Normal Model)을 이용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Vol.37, 1999.4. 한국사회복지학회. pp.1~31
- 강철희, 김교성. 1999. "실업자의 재취업과 재취업 형태에 관한 연구: Weibull Survival Model과 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Vol.39, 1999.12. 한국사회복지학회. pp.5~40
- 김엘림. 1989. "남녀고용평등법에 관한 소고." *노동법학*. 제2호. 한국노동법학회. pp.119~151.
- 김엘림. 1994. "신정부 여성노동정책의 동향과 과제." *여성과 사회*. Vol.5 No.1. 한국여성연구회. pp.111~139.
- 김인숙. 2000. "여성주의 사회복지실천의 정립을 위한 고찰." *한국사회복지학*. Vol.41. 한국사회복지학회. pp.93~118.
- 김정희, 정일환. 2002. "인적자본 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인지도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제11권 제1호. pp.133~162

- 박민자. 1997. "근로여성의 복지정책 분석: 남녀고용평등법을 중심으로." 가족학논집. 제9집. 한국가족학회. pp.191~212.
- 이건창 외9명. 2001. "기업의 인적자본 형성요인 및 지수개발을 위한 지식경영 접근방법에 관한 실증연구: 국내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인사관리연구. 제25권 2호. 한국인사관리학회. pp.29~63
- 이기영과 서지영. 1997. "사무직 기혼여성의 출산후 취업지속 결정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5권 제2호. pp.99~110.
- 이혜경.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비교." 논문집. 제15권 제1호. 평택대학교.
- 장지연. 2000. 여성주의의 시각에서 본 노동현실과 대안." 경제와 사회. 제48권. 한국산업사회학회. pp.272~281.
- 조순경. 1994. "고용과 평등의 딜레마?." 한국여성학. Vol.10 No.1. 한국여성학회. pp.181~209.
- 최은수. 1997. "인간자본론적 관점에서의 한국의 실업문제와 인적자원 개발정책". 교육재정·경제연구. 제6권 제2호. pp.383~414
- Boettke, Peter & J. Robert Subrick. 2003. "Rule of Law, Development, and Human Capabilities". University of Chicago. pp.109~126
- Cameron, John. 2000. "Amartya Sen on Economic Inequality: The Need for an Explicit Critique of Opulence".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J. Int. Dev. 12, pp.1031~1045
- Gagnon, Suzanne & Nelarine Cornelius. 2000. "Re-examining workplace equality: the capabilities approach". *Human Resource Management Journal*. 2000. 10, 4.ABI/INFORM Global. pp.68~87
- Jung Kwangho. 2002. "The Effects of Education and Literacy Skills on Wage in Five Developed Countries: Evidence of College Premium and Adult Literacy Skills". 지방연구. 제6권 제1호. pp.277~300
- Mazur, Amy G.. 2002. *Theorizing Feminist Policy*. Oxford university press.
- Nussbaum, Martha C. 2000. *Women and Human Development: The Capabilities Approach*.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ussbaum, Martha C.. 2001. "Humanities and Human Capabilities". *Liberal Education*. Summer2001. Vol.87 Issue 3. p.38. 8p, 2bw
- Nussbaum, Martha C.. 2002. "Capabilities and Social Justice".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Blackwel Publishing Inc. pp.123~135
- Qizilbash, Mosaffar. 1996. "Capabilities, Well-Being and Human Development: A Survey". *The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Dec 1996. 33, 2. Frank Cass. London. pp.143~162
- Sen, Amartya. 1997. "Editorial: Human Capital and Human Capability". *World*

*Development*. Vol.25, No.12. pp.1959~1961

Sen, Amartya. 1999. *Development as Freedom*. 박우희 옮김. *자유로서의 발전*. 세종연구원. 2001.